

LH, 건설현장 위험도 분석·AI 집중관제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

해당국가	한국	기관(기업)	한국토지주택공사	동향분야	기술	국토교통 기술분류	건축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

- LH는 전국 건설현장의 공정·인력·장비·재해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현장별 위험도를 분석하는 「실시간 종합건설정보 시스템(RICS)」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를 본격화
 - 전국 LH 건설현장의 작업내용과 인력·장비 투입, 공정·재해정보 등을 통합하여 현장별 위험도를 분석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
 - 2025년 3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단계별 시범운영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시스템 안정성과 현장 활용성을 보완하고 전국 건설현장 관리에 적용
 - 개별 현장 방문·점검 중심의 안전관리를 보완하고 전국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·분석하여 위험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이터 기반 예방형 안전관리체계를 강화
 - 건설공사 현황·현장 위험도 분석·재해발생 현황·건설현장 CCTV 등 4개 핵심기능을 연계하여 전국 현장의 공사 진행과 안전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
 - 공정률과 인력·장비 투입 등 현장별 공사정보와 전국·지역별 재해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공사 진행상황과 안전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
 - 당일 예정된 위험작업과 투입장비 등을 기반으로 전국 350여 개 현장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매일 고위험 현장 20곳을 선별하여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
- 현장별 위험도 분석과 AI 기반 CCTV·IoT 관제를 연계하여 고위험 현장을 집중 관리하는 '핀셋형 안전관리'를 적용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
 -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CCTV와 IoT 센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쓰러짐·화재 등 위험상황을 24시간 상시 감지하고 경보·현장 대응까지 연계하는 관제체계를 구축
 - 선별된 고위험 현장에 AI 안전관리 시스템 '늘봄 A-Eye'를 적용하여 CCTV 영상과 IoT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작업자·현장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
 - 위험상황 발생 시 현장 스피커를 통한 음성경고와 관계자 알림을 제공하여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요인을 확인·조치할 수 있는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
 - 모든 현장을 동일하게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AI 관제와 현장점검을 집중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예측 기능을 지속 고도화
 - 현장 위험도 분석을 기반으로 고위험 현장에 안전관리 역량을 우선 투입하고 AI 집중관제와 현장점검을 연계하여 위험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관리를 추진
 -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축적되는 건설현장 데이터를 AI와 연계하여 위험도 분석을 고도화하고 향후 현장별 위험요인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 제공 기능으로 확대

※ 출처 : 한국토지주택공사(2026.08.20), 「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전국 건설현장 '안전사고 위험신호' 실시간으로 잡아낸다」